

英才教育研究
Journal of Gifted/Talented Education
2004. Vol 14. No 1, pp. 91-114

언어 영재교육의 필요성과 방향 탐색

강승희 (한국교육개발원 박사후연구원)

조석희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요 약

본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영재교육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받고 있는 언어 영재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을 탐색하기 위한 시도으로써 이루어졌다. 과학 문명의 발전을 위해 과학 영재교육이 필요하다면, 인류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영재교육이 골고루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언어가 주가 되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 우리의 문화, 예술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언어 영재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한 준비로서 현재 우리나라 언어 영재교육의 현황을 분석하고, 언어 영재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을 탐색하여, 언어 영재교육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였다. 언어 영재교육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언어 영재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변화시켜 언어 영재 교육의 필요성을 깨닫도록 해야 하며, 언어 영재에 관한 기초 연구를 실시하여 언어 영재성 및 특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언어 영재와 기타 다른 영역의 영재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주요어: 언어 영재, 언어적 지능, 창의성, 프로그램

I. 서론

영재교육의 목적은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타고난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이는 영재교육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답이 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공교육 차원의 영재교육이 공식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영재교육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르면, 영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영재교육기관은 일반학교에 설치 · 운영되는 영재학급, 대학교 및 지역교육청에 설치 · 운영되는 영재교육원, 학교(과학영재학교)의 세 가지 형태이다. 현재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은 초등 · 중 · 고등학교에 걸쳐 비정규교육과정으로서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3년에 개교한 영재학교는 고등학교 정규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2003년 6월에 조사한 한 연구(서혜애, 손연아, 김경진, 2003)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영재학급 225개, 지역교육청 산하 영재교육원 171개, 대학교 부설 영재교육원 21개, 영재학교 1개를 포함한 총 418개의 기관에서 우리나라 전체 총 학생 수의 약 0.28%가 되는 21,616명의 학생들이 영재교육을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82%는 수학 · 과학 영재교육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18%의 학생들은 정보, 예능, 영어 등의 영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은 수학 · 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러 영역에서의 영재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여러 분야의 영재교육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강승희, 2001; 김홍원, 조석희, 김민수, 2002; 조석희, 김홍원, 박성익, 정현철, 2002).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 영재에 대한 교육이나 연구는 과학 분야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물론 수학 · 과학 분야의 발전이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 및 인간의 생활이 풍요로워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고른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컨대 우리의 정서와 문화적 수준을 높여 삶을 윤택하고 풍요롭게 만들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훌륭한 문학 작품이나 영화를 감상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언어 영역의 영재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이들은 깊은 이념과 사상을 만들어 과학문명의 발전에도 이바지 할 수 있다. 따라서 수학 · 과학 분야의 영재와 함께 언어 영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연구가 시급히 이루어져서 우리나라의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야 할 것이다.

언어 영역에 뛰어난 재능을 지닌 학생들이 현재 그들의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재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은 환경에 놓여져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영재아들의 반 정도는 평균이나 그 이하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과 같은 정도의 재능밖에는 개발하지 못한다고 한다(Manson, 1984). 따라서 그들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것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급선무라 볼 수 있다.

2002년에 발표된 영재교육진흥 종합계획 수립방안(조석희 외, 2002)에 의하면, 2007년까지 영재교육 대상자 및 분야를 확대한다고 한다. 이는 점차적으로 현재의 수학·과학 분야의 영재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의 영재들을 교육시킨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언어 영재의 경우에도 현재보다는 미래에 그 사정이 훨씬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지금은 올바른 언어 영재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수학 영재교육의 경우에도 아직까지 영재지도를 위한 표준화된 판별 도구와 방법,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자료, 지도교사, 교구 및 시설 기준 등의 미비로 인해 수학 영재교육의 정상화에 장애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남승인, 2002). 이는 제반 교육 여건은 고려하지 않은 채 영재교육이 시행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영재교육의 성공을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과 준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 확산될 언어 영재교육의 성공을 위한 기본 단계로서 언어 영재교육의 필요성 및 언어 영재의 개념, 우리나라 언어 영재교육의 현황 및 교육 방향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아 효과적인 언어 영재교육의 기초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II. 언어 영재교육의 필요성

영재는 여러 면에서 일반 학습자와 다른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영재에게는 영재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공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재교육의 모습은 어떠한가? 다양한 영역의 영재들이 그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

한 대답은 영재 분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수학, 과학 분야의 경우에는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다른 분야의 영재교육과 비교해 볼 때, 대체적으로 많은 수의 학생들이 그들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받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언어를 비롯한 다른 영역의 영재들에 대한 교육은 상당히 미진한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 중의 하나는 언어 영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언어 영재교육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1. 개인적 측면에서의 언어 영재교육의 필요성

영재교육을 실시해야만 하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은 다양한 관점과 시각에서 찾아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개인적 측면, 교육적, 사회적 측면, 국가적 측면에서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박성익, 조석희, 1996). 우선 개인적 측면에서 언어 영재교육이 왜 필요한가를 살펴보자.

개인적 측면에서 영재교육은 영재들에게 탁월한 잠재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재능 분야를 개발시켜 줌으로써 자기성취를 최대로 이룰 수 있는 학습기회를 제공해주려는데 있다. 영재들은 일반 학생들과 달리 독특한 소질이나 잠재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자신의 능력을 최대로 발현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지적 호기심이 강하여 발견과 발명의 기쁨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다. 그러므로 영재들은 자신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잠재능력이나 소질 그리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필요로 한다(박성익, 2003). 그러므로 언어 영재들도 어린 시기에 자신에게 적합한 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그들의 잠재능력이나 능력을 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는 아동기에 이루어지는 교육은 한 인간의 성격, 태도, 동기, 학습에 대한 준비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Tannenbaum, 1986; 이병진)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언어 영역에 재능이 있는 아동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2. 교육학적 측면에서의 언어 영재교육의 필요성

교육학적 관점에서 볼 때, 선천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영향에 의해서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특성면에서 영재성을 지닌 학생들은 일반 학교교육을 통해 그들의 잠재능력을 계발시키려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영재들이 자신의 잠재적인 재능계발을 위하여 교육을 받아야 할 권리를 박탈당하는 비교육적인 환경에서

는 영재학생들도 보통 학생이나 문제학생으로 전락해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므로 영재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들에게 창의적 영재성 계발에 요구되는 최적의 학습환경을 부여해 줌으로써 그들의 잠재능력을 최대로 신장시켜 주는 것은 당연한 교육적 요청이다(박성익, 조석희, 1996).

이러한 필요성은 Gagne(1991)의 적성이론에서 잘 드러난다. Gagne는 인간의 능력을 영재성과 특수 재능으로 구분하면서, 타고난 영재성이 뛰어난 특수 재능으로 계발되는 과정과 이 과정에 필요한 개인적 요인 및 환경적 요인을 포괄적으로 제시하였다. 그에 의하면 ‘영재성’은 천성적으로 타고났거나 체계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적성, 또는 잠재능력을 말하며, ‘특수 재능’은 타고난 영재성을 체계적인 훈련, 연습, 경험 등을 통해 각각의 특수한 활동 분야에서 발휘할 때 나타난 뛰어난 능력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Gagne는 한가지 이상의 영역에서 각자가 타고난 우수한 잠재 능력을 ‘영재성’이라고 보았고, 이 영재성이 개인요인과 환경 요인이라는 촉매에 의해 발휘되어 나타나는 뛰어난 성취를 ‘특수 재능’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모델에서는 영재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교육을 받지 못하면 그들의 잠재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며, 결국에는 미성취 영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Gagne의 정의에 의하면 교육학적으로 영재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 따라서 언어 영재들의 경우에도 자신에게 적합한 교육을 받아 자신의 가진 잠재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3. 국가적 측면에서의 언어 영재교육의 필요성

언어 영재교육이 미진한 가장 큰 이유는 국가적 측면에서 언어 영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족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 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수학, 과학 분야의 투자와 지원은 누가 보아도 국가를 위한 투자인 것으로 보이지만, 언어 영재들인 경우에는 그러한 필요성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은 과학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언어 영역이 인류 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바는 그 수를 헤아릴 수도 없이 많다. 언어 영재교육이 국가적으로 왜 필요한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21세기의 정보화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의사소통의 방식과 정보의 습득 및 지식 생산 방식에 있어서의 급격한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언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가짐으로써 달성되는 것으로, 학생들에게 독서 능력을 길러주는 일이 중요한 교육적 과제가 된다(박영목, 2002). 글을 통하여 인격을 도야하고 문화를 표상하고자 하는 거시적 관점의 독서는 개인의 지적인 특성을 형성하는 기제가 되며, 문화적 주체로서의 개인의 지적 결정력과 문화적 교섭력을 확충하는 바탕이 된다. 이러한 개인은 이들이 모여 사는 사회의 정신적 원동력이 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정신문화적 지향으로 자리 잡게 된다(최현섭 외, 1999).

어린 시기부터 아동들은 부모가 읽어주는 책을 듣는 것에서부터 독서를 시작하며, 글을 읽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독서 활동을 하게 된다. 책을 통해 상상력을 키워가고, 지식과 교양을 쌓고 정서적으로 안정되며 감정이 풍부한 전인적인 인간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가 다원화되어갈수록 더욱 심화될 것이다. 독서는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읽을 수 있는 글이나 내용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독서의 내용이 되는 작품을 창작하는 언어 영재들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이 지닌 언어 창작 능력을 이용하여 인간의 문화를 형성해 주는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 그들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문화를 형성하는 주체라 말할 수 있다.

둘째, Gardner(1983)에 의하면, 언어적 지능은 다중 지능 중의 한 영역이며, 문학가나 시인, 언론인, 평론가 등이 언어 영재의 대표적인 사람들이다. 즉, 언어적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문학적인 창작 활동뿐만 아니라 언론인, 평론인 등의 역할을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를 위해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신문을 읽고,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라디오를 듣는다. 바른 언론은 국민들의 여론을 올바르게 반영하고, 바른 여론을 형성한다는 말처럼, 언론 보도의 중요성은 미디어 시대를 맞이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신문활용교육도 교육방법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인은 전체 사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훌륭한 언론인을 육성시키는 것은 시대의 과제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언어 영재교육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최근 영화 '실미도'가 전국 관객 1000만명을 돌파했다. 이것은 단일 작품 관객 수 1000만명 시대를 열며 한국 영화의 신기원을 이룩한 것이며, 특히 할리우드 영화의 세계 시장 잠식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할리우드 대작인 '반지의 제왕'과 맞대결에서 거둔 성과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한다. 그리고 국내 경제에

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불러 일으켜 영화산업의 가능성을 재확인시켰으며, 전문가들은 '실미도'의 경제 유발 효과를 4000억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헤럴드경제 2004년 2월 21일자). 영화는 물론 종합예술이지만, 그 기본이 되는 영화 시나리오는 언어 영역의 영재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분야이다. 앞으로 이 영화가 해외로 수출이 되고, 여러 나라의 자본이 우리 영화를 만드는데 투자를 하고, 그것이 또 해외 수출로 이어진다면, 그 파급효과는 가히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것이다.

Ⅲ. 언어 영재의 개념

영재 중에서도 언어 영재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었으며, 아직까지 언어 영재에 대한 연구는 다른 연구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편이다. 일반적인 영재성과 영재아에 대한 완전히 합의된 정의가 없는 것처럼, 언어 영재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규정하는 정의는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언어 영재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한 김홍원 등(2002)에 의하면 언어적인 영재성은 크게 두 가지로 개념화되어 왔다고 본다. 일반지능 검사 중 언어성 지능이 높은 아동을 언어 영재로 개념화하는 경우와 여러 언어적 영역 중 하나 이상에서 뛰어난 아동을 영재로 개념화하는 경우로서, 결국 심리측정적 접근과 언어의 영역별 교육 중심 접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언어적 지능이 뛰어난 언어 영재

일반적 능력의 일부로서 언어적 지능이 높은 아동을 영재로 보는 경우는 여러 인지학자들이 주장하는 견해로 언어적 지능은 지능검사나 성취도 검사의 언어 영역에서의 높은 수행을 의미한다(Olszewski-Kubilius & Whalen, 2000). 대부분의 지능검사는 언어 능력, 언어적 개념, 독해 등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표준화된 검사의 언어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언어 영재로 볼 수 있다는 관점이다. 즉 이들은 심리측정적 방법을 이용하여 언어 영재를 판별하려고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Stanley와 Keating, 그리고 Fox(1974)는 존스 홉킨스 대학의 CTY 재능 개발 프로그램의 언어과정에서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언어영재를 판별하여 선발하기

위해 SAT-V(Scholastic Aptitude Test-Verbal) 검사를 이용하였다. 이들의 영재판별은 대체로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단계에서는 영재교육 대상 연령에 맞는 언어 검사를 실시하여 상위 3%에 속하는 학생들을 선발하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일차 검사에서 뽑힌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연령보다 몇 년 높은 연령의 언어 검사를 실시하여 상위 3%에 속하는 학생들을 다시 선발한다.

그러나 최근 심리측정적 접근 방법에 의한 연구들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심리측정적 접근 방법은 아동의 언어적 수행능력을 아동과 환경간의 역동적 상호작용의 결과가 아닌 하나의 단일한 인지적 요인의 작용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Gardner, 1983; Rose, 1988).

또한 국내의 경우에도 김홍원 등(2002)은 언어적 지능이 높은 아동을 영재로 보는 경향보다는 특정 언어적 재능이 뛰어난 아동을 영재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왜냐하면 언어 지능은 개인의 독특한 언어적 특성을 정교하게 설명할 수 없고 언어 영재교육에서 중시하는 말하기와 쓰기의 능력 수준을 잘 설명하기 못하기 때문이다.

2. 언어 영역에서의 언어 영재

언어 영재가 뛰어난을 보이는 영역이나 특성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은 다양하지만, 크게는 여러 가지 언어적 재능 중에서도 논리적인 표현력(학문적인 글쓰기)과 창의적인 표현력(문예 창작)이 뛰어난 아동들을 언어 영재로 개념화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조석희, 2003). 예를 들어 DeHann과 Kough(1956)는 Youth Development Commission이 1951년부터 작업하여 출판한 보고서 속에 드라마 창작 능력을 영재판별의 10가지 분야의 하나로 포함시켰으며, Feldman(1986)은 신동작가를 영재성에 관한 글에서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Piirto(1992)는 특출한 글 재능이 있는 7명의 아동들에 대하여 성인 작가 수준의 글을 써낼 수 있는 아동들이라고 보고하였다.

Gardner(1983)는 언어 표현 능력을 논리적인 표현과 창의적인 표현으로 나누어 언어 표현 능력이 이해 능력 없이 나타나기 어려우므로 언어 표현 능력만을 기준으로 언어 영재성을 개념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언어 표현력이 뛰어나면 이해력도 뛰어나나 그 반대로 이해력이 뛰어나다고 표현력도 반드시 뛰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Gardner는 언어적 재능은 사고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과학자, 역사가, 평론가, 소설가, 수필가가 모두 필요로 하는 능력이라고 기술하였다(조석희, 2003).

언어 영역에 능력이 뛰어난 언어 영재들을 실제로 교육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Fox와 Durden(1982)은 언어 영재성을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이들이 구분하는 영역은 말하기, 읽기, 외국어, 글쓰기, 언어적 추리 능력이다. 물론 이 능력들은 어느 정도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이 능력들이 대체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에 각 능력들을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말하기 능력은 언어 활동의 형태상 언어 표현능력으로 다른 언어 능력보다도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말하기의 발달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말하기 능력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대체적으로 말하기를 잘한다는 것은 재빠르고 적절하게 구절을 바꾸기, 복잡하고 리듬있는 패턴을 쉽게 생각해내서 표현하기, 다른 사람들의 말투를 흉내내기 등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의 내용을 상황과 대상에게 알맞게 구사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둘째, 읽기 능력은 글을 빨리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능력과 아울러 글의 중심 주제 파악, 내용 분석, 비판, 중요도 평정, 논리적 추리 등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Fox와 Durden(1982)에 의하면 읽기 영역의 언어 영재는 자신의 학년 수준보다 2학년 높은 수준의 읽기를 할 수 있는 아동으로, 미국의 경우 표준화된 읽기 검사를 통해 판별되는 경우가 많고, 읽기 능력과 언어 추리 능력은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외국어 구사 능력은 외국어를 아주 높은 수준까지 배우고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아동들을 말한다. Fox와 Durden(1982)이 외국어 능력을 언어 영재성의 한 가지 범주로 포함하기는 하였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거의 없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넷째, 글쓰기 능력은 기타 다른 언어적 재능과는 다르다. 일반적으로 언어 능력이 뛰어난 경우, 일관성 있게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 명료하게 표현하는 능력,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말하지만, 글쓰기 능력은 이런 일반적인 특성과 함께 어휘를 선택하는 데서 다른 사람과는 달리 아주 희귀한 어휘를 적절하게 구사하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쳐 버리는 현상이나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하여 표현하기, 있는 그대로 쓰기보다는 비유 또는 은유적으로 나타내기 등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리고 글쓰기 능력은 훌륭한 상상력과 풍부한 아이디어, 그러한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으로 언어 영역 중에서 가장 창의적인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언어적 추리 능력은 언어를 사용하여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말한다. 예를 들면 두 낱말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같은 관계를 가진 다른 두 단어를 생각해 내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능력이다. 이런 능력은 언어로 표현된 자료를 분석하고, 종합하여 다양한 상황에 응용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언어 영재성에 대한 정의를 종합하면, 언어영재성은 언어 이해 능력과 언어 표현 능력의 두 차원으로 구성되는 높은 언어 지능이며, 언어 이해 능력은 듣기와 읽기의 영역에서, 언어 표현 능력은 쓰기와 말하기의 영역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언어 영재는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의 네 가지 언어 영역에서 창의적이고 탁월한 성취를 보이거나 그러한 성취를 나타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IV. 우리나라 언어 영재교육의 현황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은 1980년대 특수목적고가 설립되면서 제도권내에서 실시되기 시작하였으며, 영재에 대한 연구 역시 1980년대에 이르러서 학위논문의 주제어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현재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하여 본격적인 영재교육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수학 · 과학 영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언어 영재에 대한 연구와 교육은 상당히 부족한 편이다. 본 절에서는 언어 영재에 대한 연구와 교육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언어 영재 관련 연구 현황

우리나라의 언어 영재에 대한 학위 논문 연구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의 전자도서관 인터넷 검색 시스템을 이용하여 2004년 2월까지의 석 · 박사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영재'라는 주제어로 검색을 하였다. 총 306편의 석 · 박사 학위논문이 있었다. 1969년도부터 시작되어 2003년까지 논문 중에서 박사학위 논문은 16편, 석사학위논문은 290편이 있었다. 이것을 연도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 IV-1>과 같다.

<표 IV-1> 영재 관련 학위논문의 연도별 분포 () 언어 영재 관련 논문

연도별	학위종류		총 편수
	석사	박사	
1969-1979	1	1	2
1980-1989	23	0	23
1990-1999	71	2	73
2000	33(1)*	1	34
2001	35	1(1)**	36
2002	62	5	67
2003	65(1)***	6	71
계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식

* 이순영(2000). 언어영재의 개념과 언어영재 교육프로그램 구성에 관한 문헌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승희(2001). 언어 영재와 일반 아동의 작문에 나타나는 이야기 구조와 언어적 창의성의 발달 및 차이.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관영(2003). 고등학교 일반 영재를 위한 국어과 영재교육의 방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표 IV-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영재 관련 논문은 영재교육진흥법이 제정 · 공포된 2000년도부터 급증하기 시작하고 있으며, 영재교육진흥법이 시행된 2002년의 학위논문의 편수는 1990년대 10년 동안 발표된 편수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언어 영재를 학위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경우는 박사학위 논문 1편과 석사학위논문 2편으로 겨우 3편밖에 없어 영재교육진흥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의 언어 영재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해 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영재 관련 연구를 가장 많이 하는 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 사이버 출판실에 있는 출판물에 '영재'라는 검색어로 영재 관련 연구보고서를 검색해 보았다. 1979년부터 2003년까지 영재 관련 연구보고서는 모두 152편이었다. 이를 연도별로 구분해 보았다.

<표 IV-2> 영재 관련 연구보고서의 연도별 분포 () 언어 영재 관련 연구보고서

연도별	총 편수
1979	3
1980-1989	22
1990-1994	20(2)
1995-1999	32(4)
2000	30(8)
2001	10(1)
2002	19(1)
2003	16
계	152(16)

<표 IV-2>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국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영재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보고서에서도 언어 영재 관련 연구보고서는 상당히 적은 편이었다. 그러나 학위논문에서 다루어진 언어 영재 관련 논문이 전체 논문의 0.98%에 그친 반면, 한국교육개발원의 언어 영재 관련 연구보고서는 전체 연구보고서의 10.53%를 차지하고 있었다. 언어 영재 관련 논문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3> 언어 영재 관련 연구보고서 분류

구분	연구보고서의 제목
언어 영재 판별도구(3)	① 인문 · 사회 영재 판별도구 개발 연구(Ⅱ): 언어 영재 판별 검사 판별 도구 개발을 중심으로(2002) ② 인문사회 영재 판별도구 개발 연구(2001) ③ 언어영재 판별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1997)
언어 영재 프로그램 개발(13)	① 국어과 영재교육과정 시안: 고등학교 국어과 영재교육 시안 개발을 위 한 기초연구(2000) ② For our freedom 영재교육자료 중학교 영어(2000) ③ 이야기왕 선발대회:영재교육자료(2000) ④ For our freedom 영재교육자료 중학교 영어(2000) ⑤ 광고캠프: 영재교육자료 중학교 국어(2000) ⑥ 광고캠프: 영재교육자료 중학교 국어(2000) ⑦ 이야기왕 선발대회: 영재교육자료(2000) ⑧ 영어과 영재교육과정 시안: 고등학교 영어과 영재교육과정 시안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2000) ⑨ 국어과 교육과정 시안: 초·중학교 국어과 영재교육과정 시안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1999) ⑩ 영어과 영재교육과정 시안: 초·중학교 영어과 영재교육과정 시안 개발 을 위한 '기초연구(1999) ⑪ 영재를 위한 심화학습 프로그램 개발연구: 국어, 사회, 수학, 과학을 중심 으로(1996) ⑫ 영재교육 국어 특수재능교육 사고·탐구·창조 이야기 나라(국민학교 3-4학년용)(1994) ⑬ 영재교육 국어 특수재능교육 사고·탐구·창조 신문기사(초등학교 5-6학 년용)(1994)

위의 표에 나타난 것과 같이 한국교육개발원 언어 영재 관련 연구보고서는 크게 언어 영재 판별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보고서(3편)와 언어 영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13편)로 구분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언어 영재 관련 연구가 언어 영재 교육의 기본을 이룰 수 있는 언어 영재성의 정의 및 판별보다는 실제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영재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영재들을 판별할 것인지

에 대한 숙고가 이루어져야 한다(Treffinger, 1986). 즉, 언어 영재교육을 위한 기본적인 연구가 프로그램 개발에 앞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국내의 경우에는 언어 영재교육에 기본이 되는 언어 영재성의 개념이나 언어 영재들의 특성 등에 대한 기초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 언어 영재에 대한 교육 현황

최근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은 영재교육진흥법에서 규정한 영재교육 시행 모델에 따라, 영재학교와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에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중 영재라 인정되는 학생들을 선발하고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언어 영재들은 주로 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2002년 12월말 조사에 의하면 영재교육원은 36개소, 170학급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영재학급은 81개교 177학급이 운영되고 있었다(오승현, 2002).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영재학급은 초등학교의 경우 총 77개 학급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언어 영재 관련 영재학급은 6학급으로 전체의 7.79%에 해당되었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총 48개 학급이 운영중이었는데, 이 중에서 언어 영재 관련 학급은 14.58%에 해당하는 7학급이 있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전체 52개 학급 중에서 7.69%에 해당하는 4학급이 언어 영재 관련 학급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원의 언어 영재 관련 학급은 총 170개 학급 중 20학급(11.76%)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주로 부산시 교육청에서 창작 학급(6학급)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경북 교육청 영재교육원에서 외국어 학급(9학급)이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오승현, 2002).

부산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창작 영재 학급의 경우, 창작 영재는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선발고사를 거쳐 선발되며, 수업의 형태는 원격수업, 출석수업, 방학 중 집중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언어 영재 학급 담당 교사들이 해당 교육청을 중심으로 국어과 작문 교재와 창의성 개발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만든 교수 학습 자료를 다소 임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종류의 교육과 마찬가지로 영재교육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영재교육 담당교사라 볼 수 있다. 영재 담당 교사는 학습 프로그램 개발뿐만 아니라 영재 학생들의 정서적 문제 및 생활지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역할을 해야 한다(조석희 외, 1996). 이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1년에 2회씩 현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전국 각지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고 있거나 향후 담당하게 될 교원과 전문직을 대상으로 학교 현장과 교육청에서 영재교육을 계획, 실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할 목적으로 60시간에 걸쳐 교사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1000명 이상의 교사들이 전국 단위의 연수에 참여하였지만(조석희 외, 2002), 아직까지 전국 규모에서 언어 영재 관련 과목에 대한 연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영재교육에 가장 중요한 교사 연수 역시 수학, 과학 분야에 치중되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급수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언어 영재 관련 영재 학급이 운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언어 영재 관련 교사들을 위한 연수의 기회가 시급히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V. 언어 영재교육의 방향

영재교육진흥법 시행 이후 공교육 차원에서 영재교육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지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영재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여 영재교육의 정상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남승인, 2002; 류지영, 2003; 조석희 외, 2002). 언어 영재교육의 경우에는 현재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에, 언어 영재의 개념 정의나 판별의 논란, 프로그램 개발의 문제 등 여러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고, 분석하여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이후에 시행한다면, 영재교육 원래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자가 초등 창작 영재 학급 담당 교사 2인, 중등 창작 영재 학급 담당 교사 1인과 면담한 결과에 의하면, 초, 중등 모두 창작 영재 담당 교사들은 영재성에 대한 이해 없이 영재들을 교육시키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담당하는 학생들이 언어 영재인 지에 대한 확신이 없고, 자신의 교수방법에도 자신이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일반학교 업무와 영재 프로그램 개발 및 수업 실시 등으로 상당한 업무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간혹 미리 만들어놓은 교재가 학생의 수준에 맞지 않아 수업 시작 전에 담당 교사가 또 다른 자료를 만들어 와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여 미리 계획된 수업에 다소 차질이 생기기도 한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언어 영재성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 언어 영재의 판별 도구 개발, 언어 영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언어 영재 교사 연수, 그리고 영재 담당 교사들에게 일반 학교 업무 부담 등을 줄여 주는 것

이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라고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언어 영재교육과 연구의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1. 언어 영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킨다.

언어 영재들이 그동안 영재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일반적으로 언어 영재들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부각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이것은 언어 영재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흔히 언어 영재를 단순히 말을 잘하는 아동이라고 생각하여, 말 잘하고 말 많은 아동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는지를 의아해 하는 사람들은 언어 영재들을 위한 교육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언어 영재는 단순히 말을 잘하는 아동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여 어떤 대상이나 타인 혹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아동을 말한다. 궁극적으로 이들은 새로운 문학 작품, 학설, 이론 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아동이라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인류 문화의 발전에 기여한 많은 위인들이 언어 영역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언어 영재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앞으로 우리나라의 문화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는 인재들을 육성시켜야 할 것이다.

언어 영재들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은 앞에서 이미 논의한 바 있다. 특히 국가적 필요성에서 언급하였던 필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도록 하고, 언어 영재교육이 국가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언어 영재들의 국가·사회적 공헌점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영재교육 관련 학자들이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2. 언어 영재에 관한 기초 연구를 실시하여 언어 영재성 및 특성을 이해한다.

영재교육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단계는 어떤 아동이 영재인지, 그들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는 일이다(전경원, 2000). 즉, 언어 영재들이 어떤 학생들인지를 알아야 그들에 대한 판별도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며, 그들의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언어 영재에 관한 기초가 되는 연구를 실시하는 것이 올바른 언어 영재교육의 첫단계가 되는 것이다.

특히 언어가 그 문화의 사고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관점(Vygotsky, 1978)을 생각해 본다면, 언어 영재들에 대한 이론 정립은 그 문화의 언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그들의 사고와 문화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많은 영재 연구들은 이론적 배경이 모두 외국의 것으로서, 우리나라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여 만들어진 개념이나 이론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다른 영역의 영재와는 달리 언어 영재에 대한 연구는 그 문화의 언어 영재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 결과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언어 영재성의 요인을 밝히고, 그에 따라 판별도구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이러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영재 연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3. 언어 영재를 교육시킬 전문 교사를 양성한다.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에 의하면, 영재교육을 담당할 교원은 영재교육에 대해 일정한 시간의 연수를 받게 하고 있는데, 이 중 일정 자격을 갖춘 경우 영재교육 연수를 받지 않고도 교원이 될 수도 있으며, 이런 경우 1년 이내에 필요한 연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영재교사의 직무연수를 위해 이미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60시간의 기본 교원연수와 일정시간의 심화연수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앞서 살펴본 것처럼 언어 영재 담당 교사들을 위한 직무 연수는 현재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언어 영재교육을 제대로 시행하고자 한다면, 언어 영재를 담당하게 될 교사 연수가 하루빨리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Sternberg와 Williams(2002)에 의하면 유능한 교사에게 필요한 지식은 내용지식, 교육적 지식, 교육적-내용지식이다. 이것은 영재교사인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언어 영재를 담당할 교사들에게 필요한 지식 영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내용지식은 가르칠 과목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므로 언어 영재 담당 교사인 경우에는 언어나 국어, 혹은 문학 창작과 관련된 지식을 말한다. 따라서 주로 국어교육이나 영어 교육을 전공한 교사들이 1차적으로는 언어 영재 담당 교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초등의 경우에는 교과 담당 교사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대학에서 심화과정이나 부전공으로 국어교육이나 영어교육을 전공한 교사 중에서 관심이 있는 교사가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Sternberg와 Williams가 언급하고 있는 교육적 지식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지식이다. 이 지식은 언어·영재 담당 교사들에게는 우선 언어 영재들을 비롯한 일반적인 영재들이 누구인지, 어떤 특성을 지녔는지를 아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학생의 동기를 향상시키는 법을 알거나, 교실에서 학생을 관리하는 법 등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Sternberg & Williams, 2002), 언어 영재들에 관한 지식을 쌓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적-내용지식은 가르쳐야 할 내용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관한 지식이므로 교수법과 관련된 지식이라 볼 수 있다. 언어 관련 지식과 영재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였다면, 언어 영재들의 특성에 맞추어서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따라서 언어 영재 담당 교사의 연수에는 반드시 영재에 관한 수업과 그들의 특성에 맞는 교수법을 개발하고, 평가할 수 있는 과정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지식을 언어와 관련된 여러 활동에 어떻게 관련지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과정을 포함시켜 언어 영재 담당 교사들에게 전문적인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언어 영재의 창의성 향상을 위하여 언어의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등의 모든 영역이 통합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영재성은 어떤 활동이든지 창의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조석희, 2003). 따라서 언어 영재들의 경우에도 궁극적으로는 창의성을 길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항은 언어의 모든 활동이 포함된 프로그램이 언어 영재들의 창의성을 충분히 길러줄 수 있다는 것이다.

창작 활동으로 예를 들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작가가 작품을 쓰는 과정은 이전의 체험을 재구성하는 일이다. 체험에서 얻은 각종의 기억내용이 쓰는 과정에 변형되어 들어와 재구성된다. 이 재구성되는 경험에는 이전에 다른 작가의 작품을 읽는 체험이 포함된다. 이 과정을 '경험읽기'라 할 수 있다. 경험읽기는 이전의 체험을 재구성하는 일과 남의 글을 읽은 체험을 재구성하는 이중적인 과정이다. 한편, 작가는 작품을 쓰면서 자신이 써가는 글을 읽게 되며, 글 쓰는 내용을 반추하면서 글쓰기를 계

속한다. 이처럼 작가의 글쓰기 과정은 경험 읽기와 '자기글 읽기'가 동시에 수행되는 복합적 과정이므로(우한용, 1998), 언어 영재들이 창의적인 언어 활동을 할 수 있으려면 여러 영역의 언어 능력이 모두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hompson(1996)도 읽기/문학과 창의적 작문뿐만 아니라 언어적 활동에 필수적인 요소인 어휘와 문법도 언어 영재교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즉, 언어 영재 교육 프로그램은 기본적인 언어 능력과 높은 수준의 언어 능력 모두를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이다.

언어 영재들의 창의적 활동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시, 소설, 드라마뿐만 아니라 방송극과 시나리오, 아동문학, 문학비평, 광고 카피에 이르기까지 여러 문학 장르를 통해 그들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언어 영재들의 예술적 감수성과 비판적 지성이 여러 방향으로 충분히 드러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는 언어의 모든 영역이 통합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5. 다른 분야의 영재들을 위한 언어 영재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언어 능력은 거의 모든 형태의 의사소통에 필요한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과학자의 연구가 일반대중에게도 도움이 되게 하려면, 그 연구 결과는 반드시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언어로 표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언어 영재 교육 프로그램은 언어 영재뿐만 아니라 기타 영역에 해당하는 모든 영재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언어 영재들에게는 아주 높은 수준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으며, 기타 영재들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 영재 프로그램은 언어의 각 영역별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말하기 영역의 교육은 말을 잘 하는 사람들인 웅변가, 아나운서, 사회자, 정치가 등을 위한 교육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진정한 말하기는 개인의 의사를 전달하여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데 있다. 이러한 말하기 능력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으로서, 특히 어떤 분야의 지도자가 될 영재들에게는 필수적인 능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분야의 영재들을 위한 언어 영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들의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VI. 결 론

영재교육은 국가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적인 지원을 받는다. 이러한 이유는 과학분야의 영재교육이 활성화된 배경이 된다. 그러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과학분야만 가능할까? 노벨상에 과학 분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벨 문학상까지 있다는 것을 보면, 인류의 문화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가 고루 발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측면에서 보면, 다양한 언어 분야의 전문가들이 우리의 문화 발전을 이끌어나가고 있으며, 우리의 문화 예술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은 아직 완전한 체제를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언어 영재 교육은 아직 시작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어느 한쪽 분야의 영재들만 교육의 수혜자가 되서는 안되며, 우리의 영재교육의 주 분야인 수학, 과학과 함께 다른 분야에서 재능이 뛰어난 영재들도 그들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영재교육 분야나 대상자의 확대에 앞서, 효과적인 언어 영재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여 계획하고 실행한다면, 언어 영재교육은 뒤늦게 시작하였으나,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언어 영재교육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언어 영재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변화시켜 언어 영재 교육의 필요성을 깨닫도록 해야 하며, 언어 영재에 관한 기초 연구를 실시하여 언어 영재성 및 특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언어 영재와 기타 영역의 영재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승희(2001). 언어 영재와 일반 아동의 작문에 나타나는 이야기 구조와 언어적 창의성의 발달 및 차이.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김홍원, 조석희, 김민수(2002). 인문 · 사회 영재 판별도구 개발 연구(Ⅱ)-언어 영재 판별검사 도구 개발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남승인, (2002). 영재교육 활성화 방안. 수학교육학술지, 제7집, 75-88.
- 류지영, (2003). 효과적인 초등학교 영재교육을 위한 심화학습 프로그램의 개선에 관한 연구. 교육과정연구. 21(3), 433-452
- 박경숙, 오영주(1997). 언어 영재 판별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박성식(2003). 영재교육의 발전역사와 의의. 박성익 외. 영재교육학 원론, 13-48. 서울: 교육과학사.
- 박성익, 조석희(1996). 과학영재교수법. 대전: 한국과학재단.
- 박영목(2002). 독서교육연구에 있어서의 사회 · 문화적 접근. 독서연구, 제7호.
- 서혜애, 손연아, 김경진, (2003). 영재교육기관 교수 · 학습 실태 분석.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오승현(2002). 영재교육 세부 실천방안-영재교육종합계획(안),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자료, 한국교육개발원.
- 우한용(1998). 창작교육의 이념과 지향. 문학교육학. 2, 221-251.
- 이병진 편역(1992). 초등교육원리. 서울: 문음사.
- 이순영(2000). 언어영재의 개념과 언어영재 교육프로그램 구성에 관한 문헌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전경원(2000). 영재교육학. 서울: 학문사.
- 조석희(2003), 언어 영재. 박성익 외. 영재교육학 원론, 367-405. 서울: 교육과학사.
- 조석희, 김홍원, 박성익, 정현철(2002). 영재교육진흥 종합계획 수립 방안.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조석희, 박경숙, 김홍원, 김명숙, 윤지숙(1996). 영재교육의 이론과 실제. 한국교육개발원 연수자료.
- 최관영(2003). 고등학교 일반 영재를 위한 국어과 영재교육의 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최현섭, 최명환, 노명완, 신현재, 박인기, 김창원, 최영환(1999). *국어교육학개론*. 서울: 삼지원.
- 헤럴드경제 2004 2. 21일자 연예 기사: 천만관객 신기록 달성.
- Bromley, K. (1988). *Language arts*. Boston, MA: Allyn and Bacon.
- DeHann, R. F., & Kough, J. (1956). *Identifying students with special needs*. Chicago: Science Research Associates.
- Feldhusen, J., Asher, J., & Hoover, S. (1984). Problems in identification of giftedness, talent, or ability. *Gifted Child Quarterly*, 28(4), 149-151.
- Feldman, D. H. (1986). *Nature's gambit*. New York: Basic Books.
- Fox, L. H., & Durden, W. G. (1982). *Educating verbally gifted youth*. Fastback 176. Bloomington, Indiana: Phi Delta Kappa Educational Foundation.
- Gagne, F. (1991). Toward a differentiated model of giftedness and talent. In N. Colangelo, & G. A. Davis (1991). *Handbook of gifted education*(pp.65-80). Boston: Allyn and Bacon.
- Gardner, H. (1983). *Frames of mind: The 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s*. New York: Basic Books.
- Manson, J. (1984). *Gifted education: believing in miracles*. Utah Schools, May.
- Michael, L. S. (1958). Secondary-school programs. In N. B. Henry(Ed), *Education for the gifted. 57th year books. Part II of the 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ichael, L. S. (1958). Secondary-school programs. In N. B. Henry(Ed), *Education for the gifted. 57th year books. Part II of the 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Olszewski-Kubilius, P. & Whalen, S. P. (2000). The education and development of verbally talented. In K. A. Heller, F. J. Monks, R. J. Sternberg, & R. F. Subotnik (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giftedness and talent* (pp. 397-411). Kidington, UK: Elsevier.
- Piirto, J. (1992). *Understanding those who create*. Dayton, OH: Ohio Psychology Press.

- Rose, M (1988). Narrowing the mind and the page: Remedial writers and cognitive reductionism. *College Composition and Communication*, 39, 267-286.
- Stanley, J. C., Keating, D. P., & Fox, L. H. (Eds.) (1974). *Mathematical talent: Discovery, description, and development*(pp 23-46). Baltimore, MD: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Sternberg, R. J., & Williams, W. M. (2002). *Educational psychology*. Boston: Allyn and Bacon.
- Tannenbaum, A. J. (1986). Gifted Children: Psychological and educational perspectives. New York: Macmillan.
- Thompson, M. C. (1996). Formal language study for gifted students. In J. VanTassel-Baska, D. T. Johnson & L. Neal Boyce (Eds.), *Developing verbal talent: Ideas and strategies for teachers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pp. 149-173). Needham Hts., MA: Allyn & Bacon.
- Treffinger, D. J. (1986). Fostering effective, independent learning through individualized programming. In J. S. Renzulli(Ed.). *Systems and models for developing programs for the gifted and talented*. Mansfield Center, CT: Creative Learning Press.
- VanTassel-Baska, J., Johnson, D. T., & Boyce, L. N. (1996). *Developing verbal talents*. Cambridge: Havard University Press.
- Vygotsky, L. (1978). *Mind in society: The development of higher psychological process*. Cambridge: Havard University Press.

Abstract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verbally gifted education

Seunghee Kang & Seokhee Cho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review the necessity and establish the direction of verbally gifted education. To fulfil purposes, the following studies were carried out: (1) The necessity of verbally gifted education was reviewed based on the social, educational and personal aspect. (2) The concept of verbal talent was reviewed. According to the research of verbal talent, we called a person who has a high level of language intelligence a verbal talent. Or verbal talent can also be a person who accomplished a high level in any one area among reading, writing, hearing, speaking, and foreign language. (3) The present condition and research states of verbally gifted education were analyzed. (4) The direction of verbally gifted education were proposed.

Key words: verbal gifted, language intelligence, creativity

1차 심사: 2004. 1. 20.

2차 심사: 2004. 3. 10.